

[테마진단] 아직도 G20는 우리에게 중요한가?

기사입력 2011.11.10 17:08:38 | 최종수정 2011.11.10 17:10:28

트위터 M투데이 블로그

국제무대에서는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밖에 손을 벌리기 전에 유럽 국가들 스스로가 먼저 더 많은 재원을 동원해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미국 중국 브라질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몇 시간 뒤에는 미국과 브라질이 중국 환율정책을 함께 비난하고 나선다.



지난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합의문 작성을 위해 교섭대표들이 사흘 내내 새벽까지 논쟁을 벌였다. 모두 G20가 위기에 대해 확고한 공동 대책을 내놓아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자국 이익은 최대한 보호하려 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 G20 정상들 간 합의에 대해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했고, 유럽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G20는 절반 이상 성공을 거뒀다. 유럽 국가의 정부부채 축소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으며 IMF 자원 확충 필요성에 합의해 일단 유럽 위기가 크게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

금융 개혁, 개발, 식량 안보, 무역, 에너지 등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열렸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심이 덜했지만 한국은 전임 의장국으로서 올해 G20 회의에 최대한 기여하면서 우리 목표를 달성했다.

우선, 유럽 위기 해결이라는 현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유럽 재정·금융위기 해결에서 한국은 중국처럼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유럽에 대해 단호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IMF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개도국에 대한 개발 지원과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우리 주장에 많은 국가가 공감했다.

서울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데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국가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에서 진전이 있었다. 한국이 주도한 개발의제에

서는 개도국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교통·통신 등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성과는 G20 체제 자체를 공고히 한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6번에 걸쳐 G20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아직도 `왜 20개 국가만이 모여 세계 경제의 중요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 비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G20가 세계 공동 이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비회원국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칸 회의에서는 앞으로 의장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한국이 그동안 제시했던 지역별 순환 방식이 채택돼 G20 체제가 정비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포함해 국내외 인사 1만명 이상이 서울에 모인 것이 정확히 1년 전 일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국민의 뛰어난 역량을 빛내고 국가 위상을 높인 우리 역사의 큰 이정표였다.

매년 G20에서는 1년 내내 장·차관급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를 준비한다. 강대국이 모두 참여하는 G20라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한 번 잘 개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 멕시코 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경제위기, 무역, 기후 변화 등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의제들이 다루어 질 예정이다. 의제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외교역량 강화와 더불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